

거울 속, 동화 속 '감정' 을 이해하고 표현해요

아이들은 '나의 마음을 알고 표현하는 사람' 이 되기 위해 먼저 가장 기본적인 교육들을 즐겁게 익혀야 한다. '마음 알기'란 나에 대한 이해를 통해 타인을 믿는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언어나 표정 등으로 표현해야 한다. 마음을 알고 바르게 표현했을 때 비로소 '타인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알고 표현하여 자아 존중감을 기르고, 타인에 대한 믿음이 있는 멋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호에는 그 첫 번째로 나의 마음 즉, '감정'을 이해하는 활동을 소개한다. 자료제공 리틀소시에 교육연구팀 구성 최수영 기자

활동 다양한 감정

- 활동목표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감정을 표현해본다.
- 활동자료 다양한 감정(얼굴 표정) 카드, 거울

● 활동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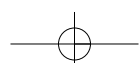
[사전활동]

- 거울 속의 내 얼굴을 보며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게 유도한다.
- “거울 속에 보이는 내 표정이 어때요?” “지금 우리 친구들의 기분이 어때요?” “내 얼굴을 보니까 어떤 표정을 보여주고 싶어요?”

[본 활동]

-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 '화남, 슬픔, 짜증, 기쁨, 행복, 무서움, 놀람' 등을 아이들이 많이 이야기하게 한 후 교사는 “우리가 이야기한 마음이 모두 내 마음 안에 있어요”라며 모두 수용해준다.
- 교사는 미리 준비한 감정카드를 하나씩 보여주며 언제 카드와 같은 표정과 생각이 드는지 이야기 나눈다.
 - 웃는 표정 카드** :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장난감을 살 때, 엄마 아빠가 안아줄 때 등

- 우는 표정 카드** : 장난감을 뺏길 때, 엄마가 집에 없을 때, 친구가 때릴 때 등
 - 놀람 표정 카드** : 친구가 장난칠 때, 간지럼 피울 때, 무서운 걸 봤을 때 등
 - 화남 표정 카드** : 친구가 안 놀아줄 때, 엄마가 혼낼 때 등
- ③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웃음이 날 때는 웃고, 눈물이 나면 울고, 놀랄 때는 놀라는 표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 상황에 맞게 나의 감정을 자유롭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 이때, 아이의 감정을 수용해주는 것은 아주 좋지만 한계는 정해야 한다. 안전과 결부시켜서 위험한 행동일 경우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아이의 감정을 모두 수용해줄 수 없음을 인지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 ④ 지금 현재 나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드는지 표정을 지어보고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표현해본다.



[마무리]

- ① 활동 후 자신의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나요?”
 - ② 앞으로 친구와 놀이를 할 때 자신의 감정을 말이나 그림카드 등을 이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해보도록 이야기한다.
- ※ 수업 활동을 가정에 전달해 아이가 표현하는 것에 대해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반응과 피드백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

활동2 책을 통한 감정 표현

- 활동목표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상상하며 책 속 주인공의 감정을 직접 이야기할 수 있다.
- 활동자료 그림책

● **활동방법**

[사전활동]

- 좋아하는 책을 1권 골라 오게 한다. 등장인물의 감정이 표현되는 동화책으로 고르게 한다(5분 정도 시간을 준다).

[본 활동]

- ① 한 명씩 앞으로 나와 내가 좋아하는 책을 소개한다. 교사는 질문을 하여 자세히 소개할 수 있게 한다.
“내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책의 내용은?” “이 책에는 누가 나올까요?”
- ② 다시 한 명씩 앞으로 나와 동화책 중 가장 마음에 드는 한 장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그림에 나타난 상황과 주인공의 표정, 기분을 언어로 표현한다.
“흥부와 아내는 기분이 좋아요. 저 박 안에 선물이 많이 들어 있어서 계속 웃고 있어요. 아이들도 신나서 폴짝폴짝 뛰어요.”
- ※ 이때, 교사는 “왜 그렇게 생각했어?”, “정말 ○○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분이 ~한 것 같아 보인다”라며 아이의 말에 질문과 공감만 해준다.
- ③ 나쁜 역할에 대해 “사람을 겁주는 도깨비는 나빠”, “괴롭히는 마녀는 싫어”라고 했을 때,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렇지 않고 어떤 행동을 했으면 좋겠는지’, ‘도깨비와 마녀가 저런 행동을 하면 내 기분은 어떤 것 같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 이야기하게 한다.
- ※ 한 권의 책을 선정하여 같은 장면의 표정을 보고 아이들이 다양하게 자신



수업을 통한 기대효과 가정통신문을 통해 함께 보내주세요.

이번 활동은 상황에 따라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알아보고,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미국 어머니들이 대기자 명단을 올려놓고 기다릴 정도로 인기 있는 스탠포드대학 부설 유아원의 교사는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첫째, 아이들의 말을 경청할 것, 둘째, 아이들의 감정을 ‘음~, ‘아!’ 등 한 단어로 인정하고 수용할 것, 셋째, 아이들의 감정을 인정할 것, 넷째, “엄마가 요술쟁이라면 네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줄 텐데” 등과 같은 말로 아이들의 희망을 상상 속에서 이루게 할 것 등을 꼽았습니다. 아이들의 감정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아이들의 말에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경청해야 하고 아이의 감정을 성인의 눈높이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엄마가 언니 편만 들어서 기분이 나빴구나”, “친구가 장난감을 혼자만 가지고 놀아서 속상했구나.” 이렇게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주면 아이는 모든 감정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아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의 행동에 문제점은 없었을까?”, “친구의 마음은 어땠을까?” 등과 같은 질문을 통해 자녀 스스로 답을 찾도록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가 대답하면 성인의 의견을 간단히 덧붙이고, 아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회를 주세요. 아이의 감정과 교감할 수 있을 거예요.

의 감정을 표현하게 하고, 다른 친구의 감정을 듣게 하는 것도 좋다.
※ 가정으로 연계하여 영화나 연극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간접경험하게 한다.

[마무리]

- 자신의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활동을 정리하고 평가한다.
“책 안에도 많은 감정이 있네요. 어떤 감정을 더 찾아보고 싶어요?” ☆

리틀소시에는 24개월~6세를 위한 연령 및 발달과정별 전문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발달단계에 따른 정서교육에 중점을 두고서, 즐거운 놀이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의 리더를 키운다.



10월호 부록 11월 교육계획안 CD '본지' 편에 표정 그림카드와 활동지, 가정통신문이 실려 있습니다.

원정/교사/부모

숨이, 놀이

표준교육과정

누리과정

가정연계